

해외학술대회 참관기

2018년 미국 지리학대회 참가 후기*

박지혁** · 송은영*** · 이민주**** · 홍예륜*****

지난 2018년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미국 지리학대회(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Annual meeting: AAG)가 열렸다. 이는 전 세계 약 90개국, 6000명 이상의 지리학 및 도시, 공간 연구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학회로, 가히 지리학의 축제라고 할 수 있었다. 때마침 뉴올리언스에서는 프렌치 쿼터 축제가 열리고 있었던 터라 학회장에도 축제의 설렘과 활기를 더했다. 온갖 사람들을 모으고 마주침의 공간을 제공하는 축제와 같이, AAG는 다양한 소속과 연구 분야를 가진 학자들이 한데 모여 자신의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

*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센터 연구조교들인 글쓴이들은 센터로부터 후속세대 양성의 취지로 출장지원을 받아 미국 지리학대회에 참가 및 발표를 했고, 학술대회에 대한 소감과 자신의 발표주제에 대한 후기를 작성했다 - 편집위원장.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parkji826@hanmail.net)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sey940505@naver.com)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박사수료(minju2407@gmail.com)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ruilun0104@gmail.com)

을 교환하는 장이었다. 필자들 역시 들뜬 마음으로 각양각색의 연구주제들 중 관심 있는 발표를 찾아다녔다.

학회가 열린 뉴올리언스는 미국의 중남부 멕시코만에 면한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한 도시로 미시시피강 하구와 폰차트레인호, 해산물이 잔뜩 들어간 케이준 음식, 식민지 시대의 건물, 마르디 그라로 대표되며 무엇보다도 재즈의 본고장으로서 유명하다. 옛 건물들이 가득 들어선 프렌치 쿼터를 중심으로 길거리와 재즈바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악이 연주되었고, 지역의 예술가들은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거리 곳곳에서 전시하고 판매했다. 세 군데의 학회장이 위치한 대로를 가로지르는 노면전차 또한 도시에 고풍스럽고 독특한 분위기를 더해 주었다. 한편, 뉴올리언스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지역인 만큼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했다. 지역 박물관인 루이지애나 주립박물관(The Presbytere)에서는 도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마르디 그라와 함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 일대를 강타한 2005년 당시의 기억을 소상히 기록해 놓았다. 이번 학회에서도 카트리나 이후의 도시의 다양한 변화 및 흔적을 보여주는 세션 및 답사가 기획되어 자연재해와 그에 대한 인간의 대응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필자들은 모두 각자의 연구주제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연구성과, 혹은 향후의 연구기획을 내용으로 발표를 했다. 이민주는 “고용중심지 특성에 따른 소득별 직주불일치에 관한 연구(The less you earn, the more you spend for commuting? Sifting out inequality in mobility from regional factors)”라는 제목으로 도시화 및 교외화에 따른 통근시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존 케인(John F. Kain)의 직주불일치 가설과는 달리, 서울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은 비교적 급속한 도시화와 재개발 과정으로 인해 다른 통근 패턴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서울로 출근하는 통근자들은 대체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통근시간을 소요하지만, 각 고용중심지들이 갖는 각기 다른 지역 특성(주거환경, 고용 및 산업특성)에 의해 소득에 따른 통

근 시간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남을 밝혔다.

박지혁의 발표는 “접경도시 대마도와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A Gateway Island Tsushima and People Across the Border)”로 한일 국경 사이에 위치하는 대마도의 사례를 통해 동아시아 경계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서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어왔던 대마도를 역사지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관광 및 다양한 교류의 현황을 통해 경계지역으로서 대마도의 성격을 분석하고자 했다.

송은영은 “경제 발전 경험 공유 사업을 통한 한국의 개발도상국 발전주의 이식(Transplanting developmentalism form South Korea to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발전계획을 총괄한 경제기획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KDI는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KSP를 이끄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한국의 경제개발정책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을 주도했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발전주의를 ODA(공적개발원조)라는 명목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 이식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헤게모니 프로젝트’와 ‘스케일 뛰어넘기(jumping-scale)’를 통한 해석을 시도했다.

홍예륜은 “사회 운동의 지리적 불균등성: 한국의 지역 퀴어 축제를 사례로(Geographical unevenness of social movement: The case of local queer festivals in Korea)”를 발표했다. 본 연구는 국내 여섯 개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퀴어 축제를 통해 섹슈얼리티와 소수자 운동 측면에서 서울과 지방 도시 간에 존재하는 지리적 불균등성으로 인해 지방의 성소수자들은 이중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음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움직임에 포착하고자 했다.

발표가 속한 세션에서는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의 발표들을 통해 연구와 직결되는 통찰이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수많은 세션들을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듯 골라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발

표가 속한 세션 외에도 각자의 관심 주제에 따라 서로 다른 세션을 참가해 발표를 듣기도 했다. 이민주가 발표한 세션은 “개발도상국 도시들에서의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을 위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개발에 대한 논의(Transit-Oriented or Transit-Adjacent Development? Interrogating the contribution of public-transport-driven development to Social Equity and Inclusion in cities of the Global South)”로,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아시아, 남미 등에서 나타나는 도시교통 분야에서의 불평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브라질 등에서 온 연구자들이 각 국가들의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본 세션에서의 논의는 도시공간에서의 교통수단은 고용, 교육을 비롯한 도시 내의 다양한 기회와의 접근성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이는 존 어리(John Urry)가 그의 저서인 『모빌리티』에서 “사회적 배제는 단순히 사회적 불평등 그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물리적 거리, 취약한 교통서비스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서술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세션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도시 불평등 관점에서 모빌리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했다.

박지혁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계연구에 관한 여러 세션들과 국제이주에 관한 세션, 그리고 지리교육과 투어리즘 세션에 참가했다. 같은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발표를 접함으로써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경계연구와 관련하여 국내학계와 국제학계의 초점으로 두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제학계에서, 특히 서구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경계·이주연구의 관심은 유럽의 난민 문제나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문제에 있었다. 물론 두 사례는 경계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곳들이지만, 주된 논의가 제3세계와 북반구(Global North) 사이에서 벌어지는 장벽과 경계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동아시아의 경계·이주연구는 후기식민주의나 발전주의, 국가중심주의, 혹은 냉전경관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

인 연구 동향과 국내 및 동북아시아의 동향 사이에는 다른 맥락이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다름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점과 맥락의 차이를 고려하고 서로 투영하면서 경계 및 이주 연구에 새로운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고민했다.

송은영은 최근 경제 지리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PN)와 개발도상국, 농업과 관련된 주제에 집중했다. GNP을 다룬 흥미로웠던 세션으로는 “진화하는 제조업의 전지구적 지리적 분석과 그 역동성(Dynamics and the Evolving Global Geographies of Manufacturing: Offshoring, Reshoring, Robotics and Autonomous Systems and Global Production)”이 있었는데, 이 세션은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 네트워크가 가진 역동성을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노바스코샤의 중소기업의 사례를 통해 다루었다. 세션에서 발표된 연구들은 GPN 이론을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지만, 세션의 진가는 발표가 끝난 후의 토의 시간에 있었다. 단순한 질문 몇 가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발표자들과 청중들은 진지한 태도로 자유토론에 임했고, 토의 내용 역시 발표자들이 본인의 연구 주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 깊고 유익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세션인 “유통과 사회적 다양성(Articulations of Logistics and Social Difference)”은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여성주의, 마르크스주의, 탈식민주의와 같은 대안적인 접근법을 통해 소개했다. 세션의 발표자들은 글로벌 공급 사슬이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유통망에 포함된 사람들의 실제 삶에서 사회적, 공간적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예륜은 젠더, 페미니즘, 성 소수자, 인권과 같은 키워드가 들어간 세션과 발표를 중점적으로 찾아 참가했다. 해당 주제들에 대한 세션과 발표가 무척 다양하고 많았던 만큼 흥미로운 연구들이 많았지만, 그중에서 “불편함의 페미니즘과 불편한 친밀함의 정치지리학(Political Geographies of Discomfort Feminism and Uncomfortable Intimacy)”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세션은 두 번에 나누어진 발표 세션과 한 번의 토론 세션으로 구성되어 오후

내내 진행되었다.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젠더적 관점에서 불편함이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세팅과 관계, 상호교차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개별 발표 주제들은 성 정체성과 지향성, 종교, 노동, 사회운동과 같이 페미니즘에서 자주 다루지는 주제들이 서로 교차했을 때 발생하는 새로운 관계와 불편함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총 여덟 개의 발표가 이루어진 후에 토론 세션이 이어졌다. 토론은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연구자들이 페미니즘을 주제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장이었다.

국제학술대회의 참가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소득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 교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학회 세션에서 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유하고 이에 대해 동료 및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 관심 있는 주제의 세션에 참가해 여러 연구주제와 사례를 접하며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사고의 범위를 넓힐 수 있었던 것 역시 학회에 참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득이었다.

국외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어 얼굴을 자주 볼 수 없는 이들과 다른 국적의 연구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또한 학회가 주는 즐거움이었다. 학회 세션들이 끝난 저녁에는 뉴올리언스 시내 프렌치쿼터의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맥주잔을 맞대며 서로 알았던 사이라면 더욱 돈독해지고, 몰랐던 이들끼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축제의 분위기가 주는 떠들썩함에 더해 매우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회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 발표 외에도 비공식적인 네트워킹과 정보공유의 장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많은 이들이 시차 탓에 졸리고 피곤해하기도 했지만 관심주제에 대한 이야기나 서로의 학업에 대해 논의할 때만은 눈빛을 반짝였다.

학기의 한 가운데에 학회가 열렸던 터라 학교에서 강의를 수강하면

서 학회 발표를 동시에 준비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고, 특히나 익숙하지 않은 영어로 다양한 국적의 청중을 앞에 두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분명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발표를 끝낸 이후에는 짧게는 후련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길게는 연구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개선의 여지를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리학에서 가장 큰 학문공유의 장을 경험해본 것만으로도 큰 경험이고 소득이었다. 평소에 대학원 공부는 책상에서 계속해서 혼자 해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가끔은 그 효용이나 쓰임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유하는 경험을 가진 것만으로도 학문을 계속해나가는 의미를 조금 찾을 수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분야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현실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학문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큰 즐거움을 알게 된 유익한 경험이었다.